

DJ·노무현 묘역 첫 참배 등 광폭행보

박근혜 '국민대통합' 시작됐다

봉하마을 권양숙 여사 예방... 지지기반 넓히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대권 행보의 첫 키워드로 '국민대통합'을 꺼내놓고 지지기반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에 나섰다.

박 후보는 첫 공식일정으로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데 이어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면담했다.

박 후보의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는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조문차 봉하마을을 찾았으나 당시 친노(친노무현) 인사들과 충돌 등을 우려, 마을 입구에서 발길을 돌린 바 있다.

박 후보와 노 전 대통령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전

격 제안했고 둘은 '대연정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민생경제'를 위한 초당적 내각' 구성 제안에 대해 박 대표가 "노선이 달라 같이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대연정 구성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 임기 말인 2007년 1월 노 전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자 박 후보가 "잘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하면서 둘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다.

이날 박 후보의 봉하마을 방문은 전남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지지기반은 노 전 대통령을 흠모하는 중도, 진보층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경선캠프 대변인은 지난 이상일 의원의 "박 후보가 보수·중

도·진보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며 "오늘 봉하마을을 찾은 것은 국민대통합의 뜻을 실천으로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나아가 박 후보의 이번 봉하마을 방문은 현 이명박 정부와 완전 차별화를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서 갖게 될 이명박 정부의 부채를 털어낼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이다.

즉, 이명박 정부 초기 검찰 수사로 죽음을 맞은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해, 자신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행보로 해석된다. 지지기반은 노 전 대통령을 흠모하는 중도, 진보층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경선캠프 대변인은 지난 이상일 의원의 "박 후보가 보수·중

치 않게 세상을 떠난 점을 거론하며 "권 여사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잘 이해한다"고 인사했다.

이에 앞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은 박 후보는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 앞에서 참배한 데 이어 이승만·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차례로 찾았다.

박 후보는 방명록에 '호국영령들의 송고한 뜻 받들어 국민대통합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고 적었다.

또, 박 후보는 대선후보로서 이날 오전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의와 의원총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새누리당 당헌상 대선 후보는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안의 범위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갖는다.

따라서 박 후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있던 테이블 정중앙에 자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21일 오후 김해 봉하마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박근혜 공세' 일제 포문

공천현금·고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등 고강도 비판

민주통합당은 21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를 정조준, 심자포화를 퍼붓는 등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박 후보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꺾는 한편, 새누리당의 공천현금 사건과 고(故) 장준하 선생 타살 의혹 등의 현안과 연계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등 과격적인 통합행보를 시작한 박 후보의 바람몰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해찬 대표는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선출이후보다 추대로 봐야 한다. 장준하씨 관련 선거를 연상케 한다"면서 "1987년 이후 대통령 직선제를 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인데, 유신시대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섯 명의 후보가 경선한 새누리당의 경선에서 84%가 나온 것은 역시 유산을 제대로 지키는 개인 사당의 증거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그들만의 추대잔치가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박 후보가 미래 키워드로 제시한 제안들이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면 현안을 푸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불법 민간인 사찰, 공천비리, 정수장학회 문제 등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부패적절이나 정치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공천 현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박 후보는 더 이상 공천 장사를 개인 비리로 규정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박근혜 후보는 (유신시절의 문사를 당한) 장준하 선생 묘소를 참배하고 유족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박 후보에 대한 거센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박 후보의 '말 바꾸기' 의혹 사례를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박 후보는 정책 등에서 말바꾸기를 해왔다"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며 본격적인 국민 검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100% 대한민국' 공감 '중도개혁' 인사 대거 중용?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선대 위에는 '중도개혁' 인사들이 대거 중용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친박 핵심인 김재원 의원은 21일 SBS라디오에 출연, "중도개혁 쪽의 많은 분을 받아들여야만 국민이 '100% 대한민국'이라는 (박근혜 후보의) 말에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가 취약한 수도권·중도개혁층·20~40대를 잡기 위해서는 개혁성향의 중도층 인사를 최대한 많이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 후보가 전남 수락연설에서 강조한 '경제민주화·정치개혁·국민통합'을 용인술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면 이런 기조는 더욱 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선대위 구성을 맡을 대선기획단 단장에 경제학자 출신으로 개혁 성향의

친박 핵심 유승민(3선) 의원을 검토하는 것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박 후보 자신도 중도개혁 인사들을 끌어들이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시 일면식이 없어도 비대위의 정치체신 취지에 부합한다면 '삼고초려'까지 하면서 직접 연락해 비대위원으로 참여시켰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비대위 구성 당시 접촉했던 인사들이 '인사풀'의 참고자료도 될 전망이다.

친박계 한 관계자는 "박 후보는 보수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경제·문화·예술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중도개혁적인 인사를 찾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근혜 '국무총리급' 경호 경찰, 대선까지 24시간 철통 수행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박근혜 후보는 '국무총리급' 경호를 받게 된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박 후보에 대한 경호는 경찰이 담당하는 최고 등급인 'ehl' 수준으로 격상됐다.

ehl 경호는 국무총리와 국회 의장, 대법원장 등 4부 요인에 적용되며 대통령 등에 대한 '갑호' 경호는 경호처가 직접 수행한다. 수행경호와 행사장 경호 등으로 분류되는 경찰 경호팀은 대선 이후 마무리될 때까지 박 후보를 24시간 철통 경호하게 된다.

당장, 경찰은 지난 20일 박 의원이 대선 후보로 선출됨과 동시에 경호 인력을 기존의 5명에서 5명을 더 보강, 총 10명으로 늘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찰은 이날 전당대회 직전에 경호팀 5명을 미리 현장에 배치했다가 대선후보 선출 직후 곧바로 이들을 경호 업무에 합류시켰다.

앞으로 박 후보가 참석하는 모든 행사장에는 행사장 담당 경호팀이 사전 출동해 보안상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며, 일과 후에도 박 후보가 원할 경우 삼성동 자택 근처에서 경호를 한다.

경찰은 야당 대선후보가 결정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등 공식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경호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고 경호팀 규모를 30여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 경선 끝나면 박근혜 추월"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21일 "우리당 후보가 (내달말) 경선이 끝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추월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향후 대선 판도를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현재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 중 유력한 분과 박 후보 간 격차가 4~5%로 줄

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 박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대선경선 후보의 양자대결시 지지율 차이가 4.5%포인트로 좁혀진 것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제주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한달 간 이어지는 대선후보 순회경선 레이스에 집중

할 계획이라며 "8월과 (경선이 끝나는) 9월달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 자진사퇴론에는 "최필립이 물러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유족에게 돌려주든가 부산시민 동의를 받아서 사회에 환원하든가 해야 최필립 물러나고 제2의 최필립 갖다 놓으면 무슨 사회 환원이 되냐"고 반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31(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 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임대&매매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매대

- 카페, 파티룸, 뷔티샵 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 500대
- 보증금 3억 / 월세 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매대

-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45만
- 150세대, 15층
- 8억 투자 = 수익 10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 임대

각화동 아울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임대기 및 조건조정가능)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1층)

경매투자 NPL물건 특수물건

→ 경매 배우실 분!
→ 경매 입찰 하실분!
→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분!
→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주 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범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